

한형조

무문관 탐방

47

용담의 촛불 ③

학승으로서의 덕산의 교만과 아집은 남달랐다. 그 려에도 노파의 칼날 앞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남방의 새로운 조류에 무 엇인가가 있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근처 어 디에 큰 선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노파는 5리 너머 에 용담을 알려 주었다. 산사에 이르러 우선 예의 큰 소리부터 들었다. "내 오 래전부터 용담의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연못(潭)도 없고, 더구나 용(龍)은 못배기도 아니 보이는구나." 기선을 잡자는 것이었는데 용담의 대답이 평평했다. "그러, 자네야말로 진정 용담에 이르렀네." 진짜 용담에는 연못이나 용 따위의 대상(物) 혹은 표지는 없어야 한다. 남전의 말처럼 "궁극은 결코 어떤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不是佛 不是心 不是物)". 덕산은 용담의 응 수를 즉각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하다가 아무 든 하루 묵어가기로 했다. 화자답게 덕산은 변설로 용담을 섬기게 했다. 늦도록 장황한 형이상학을 논하는 덕산이 딱딱, 용담은 늦었으니 그만 처 소로 돌아가라고 했다. 또 악하니 발을 끌고 나서는 덕산 앞에 철쭉의 어둠이 들어왔다. (때는 아마 여름이었나 보다) 덕산은 되돌아와 용담에게 말했다.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은 종이등에 불을 붙여 건넜다. 덕산이



그림·이은석

신의 해방은 이 견고하고 딱딱한 세계를 허물어뜨 리면서 시작한다. 고타마 붓다의 통찰의 첫걸음이 이것이고, 나중 소승불교 의 근본태도가 또한 이것 이다. 아비달마의 분석을 기억할 것이다. 세계는 자체의 실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거짓, 혹은 착각 으로 얽어놓은 허구의 건 축물임을 밝히려는 그 치밀한 노력을. (반야(般若)는 그 차가운 교실의 진통을 이어 말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이 말은 세계의 본질, 혹은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우정 다르다는 것을 간결하게 일깨우고 있다. 깨달음이란 다른 아니라 바로 그 세계의 실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혁명적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때 자유가, 그것도 영원의 자유와 열락이 찾아온다고 (반야심경)은 전한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께서는 이 소식을 깨우치시고 일체의 고통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셨다." 관자재, 즉 "자유롭게 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습관인 "오관(五觀)과 의식(六識)의 야합 혹은 공생"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유식(唯識)은 알라야식(阿賴耶識)을 둘러싼 그 소외의 실상과 해방의 도정을 밝히고자 한다. 어쨌거나 영원(nirvana)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은 '혹' 불을 켜다... "눈을 반쯤만 뜨고 보라"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용담은 혹하고 불을 꺼버렸다. 등불이 꺼지는 충격이 놀랍게도 덕산의 철쭉같은 정신에 불을 붙였다. 덕산은 기가 막힌 절을 울리며 말했다. "이후로는 천하의 노승들이 하는 말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과연 덕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알겠는가. 선의 비밀을 꿰뚫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혜가의 말마따나 "문 없는 문(無門)을 벗어나" "역대의 여러 조사들과 손잡고 한 자리에 어울려,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들을 것이다." 가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용해(容喩)할 일은 아니지만, 그 계기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사물과 세계의 정보를 얻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쓴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대개는 눈, 즉 시각을 통해서 온다. 신경이 곤두서고 피곤할 때 가끔 눈을 감고 그 언저리를 누르면서 생각한다. "내가 너무 많이 보느냐. 소련하우어가 그랬던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욕망이 눈이라는 기관을 있게 했다고." 과도한 불은 욕망의 발원이고, 동시에 공포의 화강이다. 그를 통해 세계는 자신의 실재성을 거역할 수 없는 위압으로 강요한다. 정

시각의 맹목적 의존부터 줄여야 한다. 선은 말한다. "간간안반개(看看眼半開)", 눈을 반쯤만 뜨고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이다. 법당의 부처님도 가늘게 눈을 뜨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세계가 주는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각을 통한 정보의 창구를 좁히면 자연히 다른 쪽에 쓸 에너지가 늘어난다. (영화 <서편제>는 소리의 감각과 목의 발성을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소리꾼을 그리고 있다) 수행자는 의적 세계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비축된 에너지를 세계의 실상과 정신의 비밀을 향한 수직적 탐구로 돌려나간다. 덕산의 앞을 막아선 것은 캄캄한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세계는 그저 연속된 무차별의 공간일 뿐이다. 의식은 분별(vikalpa 分別)을 먹이로 살찌는 바, 구분도 확신도 불가능한 혼돈상태를 의식은 견뎌내지 못했다. 죄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벽방아라 한다. 한 점 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 발을 걸 사람도 없이 몇 날 며칠을 그냥 두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미쳐버리고 만다. 덕산 또한 그 자기부정과 혼돈의 두려움 앞에서 전율하며, 한걸음을 나아가지 못했다. 덕산은 용담을 돌아보며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다. 그런데 용담은 손을 내밀다가 다시 거두어들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감정에 얽매이지 말자"

독창적이고 유일한 존재이길 바라 고 모든 존재들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우리는 고립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추는 것 등을 두려워하고 싫어 한다.

정사유(正思惟)에서 '열립'과 '역행'의 미덕은 우리에게 고독, 행복, 두려움 등의 감정을 발견하고 마음을 행하는(正念) 것을 가르친다. 여러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는 대상은 달라진다. 거리를 걷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식점이다. 길가의 화려한 구두가게는 결코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행(renunciation)'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몸을 관하는 명상수행은 역행(逆行)의 본보기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팔정도(八正道)를 걷는 우리는 몸의 무상성(無常性)과 부정(不淨)한 측면을 보아야 한다.

아차차(Achaan Chah) 스님은 제자들에게 명상수행을 가르친 후 항상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책·콘필드가 쓰는



6

정사유 ②

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착 하듯이 익숙하지 않는 방법 규칙 등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익숙한 여행들 기대하던 변화 만을 가 지려고 한다. 이때 감정에 그달리지 않는 '역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관심 흥미 따라 대상 다르게 보이니 마음의 집착을 놓자

또 아차차 스님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할 때, 사리를 존자가 수행자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번뇌와 유혹으로 부터 고통을 권고한 이유를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된 곳을 찾아가 "옴(Om)"하고 외쳐보지만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내면을 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흥미를 느끼기 시작 한다면 마음과 몸이 변화를 겪고 고통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평온이 오든 안오든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바른 인(因)을 짓고 있으며, 자신에게 무엇이 나는 일은 무엇이라든 다 활용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

까', '평온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우리는 내면을 깊이 관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집착, 습관, 공포 등 무엇이든 놓을 수 있다.

명상수행은 두려운 고통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슬픈 감정들에게 영 향 받는 마음과 몸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또 불유쾌한 발견이지만 유익한 경험이며 감정의 속박에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5

양상이 전체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구조를 보고 아래 계층의 발달을 관찰 하면 전체와 같은 작은 구조가 곳곳에 잠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의 독재적인 경향은 관공서와 기업 등 거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났다. 한때 권력기관에서는 인권유린이 다 반사였고, 심한 경우에는 고문치사

이 일어났다면 다른 곳에서도 규모는 다를망정 유사한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전에 한 용감한 중소기업 사장은 '마피아의 총대를 맨 검사들'이라는 표제의 글을 거역의 광고비를 들여 게재한 일이 있었다. 또 의정부 관사 전원이 뇌물사건에 관련되어 전임되었다. 그것은 카오스 이론의 자기닮음 현상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이다. 대학, 법조계

즉다 다죽일'의 논리는 순환논리가 되어 끊임없이 부패와 죽음의 무한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뿐이다. 그러나 카오스이론은 '나비효과'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며칠 후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의지가 얼마든지 전 사회, 온누리에 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한다.

유마거사는 '중생의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보살은 중생이 병들 때 함께 앓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에서다. 사회 전체가 요청하는 선의지가 보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생명체에 있어서의 생물학적인 생명 의지가 보살의 마음 사이의 선의지가 일치화되어 있다. 최근 나라 전체가 병들어 IMF 한파로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을 맞고 있다.

전사회는 계층마다 악의 꽃이 만발하는 프랙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개체와 전체가 함께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의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형기에 나 하나뿐이라도 선의 바람을 발원한다면 내일에도 온누리에 빛이 가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큼, '일죽다 다죽일'의 철학이 현실적으로는 나비 효과의 발효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와 수학

50

자기닮음

김용운

지난 호의 이야기는 '정인류와 개인', 그리고 '개인'과 '세포'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인 답을 있음을 내용으로 했다. 또한 이러한 상부하부 사이의 답구조를 수학에서는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가령 새의 깃털의 각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의 날개 모양처럼 보인다. 눈송이의 결정(結晶), 고사리, 해안선...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그것이 외국, 또는 일본이라는 식으로 특정 장소를 말할 수는 없더라도 한국의 것은 금방 구별할 수 있다. 풍경 한토막은 어김없이 한국 전체,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병들게 되면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암세포, 에이즈 등의 무서운 세포도 처음에는 하나에서 병들기 시작하며, 마침내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게 한다. 특히 사회나 기업 구조에 있어서는 한 계층의 활동

한국사회 '악의 꽃' 만발 IMF맞아 한사람 좋이지 온누리 빛 될수도

사건도 있었다. 그러자 상아탑을 자 처하는 대학에서조차 학생간에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일부 학생은 교수에게 밀가루를 던져 모욕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원이 이 모양이니 사회 곳곳에서는 온갖 부조리가 범람했다.

최근 서울대 치과대학에서는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거역의 풍금이 오갔음이 보도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대학의 교수는 치과대학에만 있는 사건이라고 애써 변명하고 '치과대학 교수들은 이빨이 좋아서 잘 먹는다'는 식의 농담으로 얼버무린다. 그러나 이미 한 곳에서 그런 일

등은 하나의 하부계층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는 그 위에 정치권력 구조가 있다. 전, 노 전직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조(兆)가 넘는 돈을 끌어 모았고, YS는 한보에 5조원의 부정용자를 했다. 전체 구조가 부패할 때 그 하부구조 곳곳에서는 그 규모에 어울릴 만큼의 부정부패가 생기고, 드디어 나라 전체가 부실화되어 IMF사태를 맞은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하위 구조인 한 세포가 병들 때 상부 구조인 몸 전체가 병든다고 했다. 또한 몸 전체가 병들면 세포가 병들게 된다. 이때 '일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 자가 안가기 작해네 스님 0 L R M 1 2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예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범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4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열반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로운 불교 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 5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마음을 밝히려는 새 범구경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범구경
- 깨달음의 길 1, 2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조반심자경문·종도사 등 37여 경전
- 깨달음의 길 3, 4, 5, 6, 7, 8, 9, 10, 11, 12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조반심자경문·종도사 등 37여 경전
- 도서출판 좋은인연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 부속 출판사) 053)475-3707

향 다이어트

살! 살! 살!



아름다운 몸매를 갖자면 악마 / 그래서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 불어도 봤습니다 / 착용도 해봤습니다 / 마시기도 해봤습니다 /

그러나 살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 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싶어하는 욕구 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향인 아로마 트림을 사용 했습니다. 코에다만 대주세요. 이 아로마 트림은 100% 천연향으로 이 향에는 테르펜과 멘톨이라는 정유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 대사에 신속한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지방질 을 산화시켜주며 맛의 90%인 음식의 향을 조절하여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 므로 자연스러운 식욕조절로 번거로움 없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상담실 02)755-9821

냄새만 맡으면...



냄새만 맡는 다이어트는

-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 대부분 다이어트 제품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로마 트림은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서나 코에 대고 흡입만 하는 간편한 요법이다.
- 천연향으로 인체에 조화롭게 작용한다. 다이어트가 몸을 상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로마 트림은 천연향으로 원하는 만큼 사용해도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
-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 해 다이어트를 실패한 분이 많습니다. 장기간 무리한 고통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망설이는 분 지금 이 아로마 트림을 사용해 보세요.
- 자연스러운 몸과 과학이다. 아로마 트림의 천연향은 후각의 자연스런 자극을 과학적으로 응용해 음식의 맛과 냄새에 변화를 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제품으로 미국 청소년비만협회 회장인 어니 스트 반드그레히 박사의 자신있는 제품입니다.